

“고향서 뛰니 에너지 솟아요... 목표는 무조건 金”



U대회 빛날
광주·전남 스타

⑬ 야구 대표 광주 7인

이건열 감독 KIA 타이거즈 출신
선수들 광주서 야구 시작하고 배워
“정신력으로 무장 전승 우승할 것”
6일부터 일본·프랑스·중국과 예선



고향에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야구 금메달에 도전하는 광주출신 대표팀 선수단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박창빈(동국대·오른쪽부터), 양구열(중앙대), 장진혁(단국대), 이성규(인하대), 이건열 동국대 감독, 고천주 송원대 감독, 차동철 동국대 감독.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야구 ‘금메달’을 위해 광주 7인방이 뭉쳤다.

지난달 26일 푸른 유니폼의 야구 대표팀이 결전의 무대 광주에 집을 풀었다. 무등경기장, 챔피언스필드, 광주일고 등이 이들의 준비무대. 이곳이 익숙한 이들이 있다.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동국대 이진열 감독이 타이거즈맨 출신이다. 코치로 함께하는 차동철 건국대 감독, 고천주 송원대 감독 역시 각각 광주일고와 광주상고(현 동성고)를 졸업한 지역출신이다.

22인 엔트리에서 광주에서 야구를 시작하고 배운 선수도 4명이나 된다.

내야수 양구열(중앙대 4년)과 외야수 박창빈(동국대 3년)이 진흥고, 내야수 이성규(인하대 4년)가 동성고를 나왔다. 내야수 장진혁(단국대 4년)은 광주

출신이다.

자랑스런 태극마크를 달고 고향을 찾은 이들의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다.

이건열 감독은 “홈에서 경기를 하니 에너지가 폭발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조직력으로 승부를 하겠다. 특히 첫 경기가 중요하다. 한일전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첫 경기가 잘 풀리면 잘 될 것 같다. 전승을 한다는 생각으로 첫 경기부터 전력을 풀가동하겠다. 실수에서 승패가 갈릴 것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경기를 풀어가겠다”고 언급했다.

금메달을 향한 한국대표팀의 첫 관문이 만만치 않다. 150km 이상을 던지는 투수들과 정교함을 앞세운 일본이 한국대표팀의 첫 상대. 한국은 6일 오후 6시 한일전을 치른 뒤 7일 프랑스(오후 5시), 8일 중국(오후 6시)과 예선리그를 치른다.

코칭스태프는 조직력과 정신력으로 부족한 전력을 채워 금메달이라는 목표로 가겠다는 생각이다.

고천주 코치는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마음으로 하겠다. 어떻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승리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해태시절 4개의 우승 반지를 썼고, LG에서 2년의 우승 경력을 더한 차동철 코치는 또 다른 우승에 도전한다.

차 코치는 “이곳 그라운드를 밟으니 각오가 새롭다. 다른 야구 대회와 달리 순수 아마추어 선수들로 꾸려진 팀이다. 그만큼 부담도 있지만 아마추어 선수들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강한 어깨, 빠른 발, 해결사 본능, 자신감 등 4인4색 선수들도 정상을 향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강한 어깨를 과시하는 이성규는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한 플레이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춘계리그에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정진혁은 빠른 발이 무기다. 장진혁은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플레이를 하겠다. 발이 자신 있다. 빠른 발로 좋은 주루플레이를 선보이겠다”고 언급했다.

팀의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는 양구열은 “팀의 ‘분위기’를 담당하고 있다. 덕아웃에서 그라운드에서 최고의 분위기를 만들겠다.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다”고 웃었다.

3학년인 박창빈은 “한번에 점수를 낼 수 있는 공격이 장점이다. 기회에서 타점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형들을 도와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특별취재단=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모교에 야구발전기금 기부한 강정호 선수의 부친 강성수씨

“광주 야구 발전위해 1000만원 쾌척 아들, 귀감되는 선수로 성장했으면”

‘빅리거’가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광주일고 야구 꿈나무들을 위해 1000만원을 내어놓았다.

광주일고 출신의 4번째 메이저리거로 맹활약하고 있는 강정호는 지난 30일 아버지 강성수씨를 통해 모교에 야구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야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온 만큼 야구를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다”는 것이 강정호의 생각이다. 강정호는 앞으로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동안 매년 야구발전기금을 낼 계획이다.

강정호를 대신해 모교를 찾은 아버지 강성수씨는 “똥부터 생각을 했던 일이다. 아들을 대신해서 전달하게 됐다. 오전에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 야구를 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흔쾌히 기부금을 내어놓은 ‘빅리거’ 강정호는 아버지의 속 한방을 받은 적이 없는 아들이다. 프로에 입단하고, 미국에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강성수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를 한번 해보겠느냐고 물었는데 다음날 바로 알아서 야구부에 가서 유니폼을 받아서 가지고 왔다. 하기 싫은 것은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 번 투정을 하기는 했지만 야구를 그만 두겠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일어나고, 잠을 자고 알아서 깬다. 욕심이 많아서 플레이가 잘 안되면 집에 와서 혼자 스윙을 하기도 했다. 강하게 키우기도 했고 멘탈이 강하더라서 미국 진출



에서의 초반 부진에도 아버지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강성수씨는 “스트레스를 줄까봐 특별히 연락을 하지는 않는다. 데드볼에 맞는다거나 부상 걱정이 될 때 가끔 연락을 하는데 원래 성격이 적극적이기도 하고,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잘 적응하고 있다. 7월에 아들을 보러 미국에 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빅리거’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강정호. 아버지는 이번 후원을 계기로 더 모범적인 야구 선수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강성수씨는 “작은 시작이지만 앞으로 성장하고 어느 정도 지위가 되면 후원 같은 것에 더 많은 역할을 하면 좋겠다.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더 큰 선수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로서의 바람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정호

추신수, 500타점 ‘왕’

볼티모어전서 한달만에 시즌 9호 홈런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 한국인 외야수 추신수(33)가 시즌 9호 타점을 그리며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500타점을 채웠다.

추신수는 지난 3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캠프아드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방문 경기에 2번타자·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회초 세 번째 타석에서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4-0으로 앞선 상황, 선두타자로 등장한 추신수는 볼티모어 오른손 선발 베티 노리스의 시속 148km짜리 직구를 잡아당겨 우중간 담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기록했다. 6월 3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 이후 27일 만에 그린 타점이다.

추신수는 이 홈런으로 14일 미네소타 트윈스전 이후 16일 만에 타점을 추가하며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500타점도 채웠다.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뛰던 2005년 5월 4일, 빅리그 진입 후 세 번째 경기였던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에서 대타로 나서 메이저리그 첫 타점을 올렸던

추신수는 10년 뒤인 이날 500타점을 채웠다.

당시 스즈키 이치로에 밀려 자리를 잡지 못했던 유망주 추신수는 10년이 흐른 지금, 7년 1억3000만 달러의 초대형 계약을 한 스타 플레이어가 됐다.

이날 추신수는 1회초 첫 타석에서 내야진이 모두 1루쪽으로 이동하는 ‘추신수 시프트’를 뚫고 좌전 안타를 치며 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3회 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쳐냈다. 추신수는 7회에도 볼티모어 오른손 불펜 도미 헌터의 시속 138km 파워 커브를 받아쳐 우전안타를 쳤다.

추신수는 14일 미네소타전(4타수 3안타) 이후 16일 만에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 3안타 경기를 완성했다. 올 시즌 추신수의 16번째 멀티 히트, 3안타 경기는 6번째다. 4타수 3안타(1홈런) 1타점 2득점을 기록한 추신수는 시즌 타율을 0.225에서 0.232로 끌어올렸다.

팀은 8-1로 볼티모어를 제압했다. /연합뉴스

최나연, 세계 여자 골프랭킹 13위로 경총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시즌 2승을 거둔 최나연(28·SK텔레콤)이 세계여자골프랭킹 13위에 올랐다.

29일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최나연은 30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4.76점을 얻어 지난주보다 7계단 상승했다.

세계랭킹 15위 안에 든 한국 선수 중에는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여서 2016년 리우 올림픽 출전 가능성도 남겨놓았다. 한국의 경우 세계랭킹 15위 안에서 상위 랭커 4명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12.01점을 받아 세계랭킹 1위를 지켰고,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가 10.51점으로 뒤를 이었다. 3위는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4위는 김효주(20·롯데)가 차지했다. /연합뉴스